

나눔으로 교류 ... “참 반갑다”

서울가든클럽, 반갑다 연우야에 기금 전달·의료봉사현장 참관

지난 달 1일 문을 연 구립종로노인종합복지관(관장 정관)에 2월 24일, 반가운 손님들이 찾아왔다. 불교의료봉사지원단 ‘반갑다 연우야단장 구자선’과 이들에게 지원금을 전달하기 위해 찾아온 주한 외교대사부인들의 모임 ‘서울가든클럽(The Garden Club of Seoul, 대표 캐롤린 라 브래쉬)’이다.

서울가든클럽은 현재 브라질, 독일, 영국 등 18개 국가의 대사부인과 조계종 중앙신도회 김의정 회장을 비롯한 국내 전·현직 장관 부인 15명을 포함한 30여 명이 활동하고 있는 친목모임으로 한국 알리기와 봉사활동 등을 펼치고 있다.

캐롤린 라 브래쉬 캐나다 대사부인과 파멜라 모리스 영국 대사부인, 나ومی 알-미드하드 카타르 대사부인, 가든클럽 회원인 임화공 여사는 오전 11시, 구립종로노인종합복지관에서 진행된 반갑다 연우야의 무료 정기집진 현장을 찾았다. 이들은 반갑다 연우야의 활동 내용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들은 후, 회원들의 회비를 지원금으로 전달했다.

브래쉬 캐나다 대사부인은 “김의정 회장을 통해 반갑다 연우야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매우 감명 받았다”며 “많지 않은 성금이지만 불교의료봉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

길 바란다”고 말했다. 구자선 단장은 “불교의료봉사의 뜻에 공감하고 기금을 전달해 준 서울가든클럽에 감사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의정 회장은 “지난해 말 열린 이사회에서 반갑다 연우야의 견진 버스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모두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며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뜻을 밝혀 이번

만남을 주신하게 됐다”고 밝혔다. 전달식 후 가든클럽 회원들은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수탁, 조계사가 운영하고 있는 구립종로노인종합복지관 시설과 의료봉사활동 현장을 둘러봤다. 정관 스님의 안내에 따라 컴퓨터실과 탁구장, 찜질방 등의 시설을 둘러본 파멜라 모리스 영국 대사부인은 “전망과 시설이 너무 좋아 어르신들이 이용하는데 편리할 것 같

다”며 “어르신들을 위한 의료봉사활동도 많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가든클럽 회원들은 “앞으로 더 좋은 사회를 만드는데 가든클럽과 불교계가 함께 나서고 지속적인 교류를 이어나가길 바란다”며 2시간여에 걸친 방문을 마무리했다.

구립종로노인종합복지관은 3월 중 개관식을 병행할 예정이다.(02)742-9500 **여수령 기자**



“불교의료봉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주한 외교대사부인들의 모임인 ‘서울가든클럽(The Garden Club of Seoul, 대표 캐롤린 라 브래쉬)’ 회원 5명은 2월 24일 구립종로노인종합복지관에서 열린 반갑다연우야(단장 구자선)의 봉사현장을 찾았다. 사진은 캐롤린 라 브래쉬 캐나다 대사부인이 구자선 단장에게 기금을 전달하는 모습. 사진=박재현 기자

귀신사 삼불좌상 등 보물지정 예고



문화재청은 2월 27일 한국학중앙연구원 소장하고 있는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과 <대불정여래밀인수증요의제보살만행수능엄경>, 전북 김제 귀신사 소장 ‘귀신사 소조 비로자나 삼불좌상’(사진)을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 ‘귀신사 소조 비로자나 삼불좌상(歸信寺 塑造 毘盧遮那 三佛坐像)’은 17세기 전반기의 작품으로, 명대의 조각양식을 기반으로 새로운 양식을 창출해내고자 했던 기법을 보여준다. **여수령 기자**

청소년 심성프로그램 ‘우리도 부처님처럼’ 나와

조계종 포교원이 청소년들이 겪고 있는 어려운 상황을 부처님의 삶과 가르침을 통해 극복할 수 있게 <청소년 불교 심성 프로그램-우리도 부처님처럼>을 발간했다. 김남선 구암중학교 역사 교사가 현장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한 결과를 바탕으로 개발한 이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꺼려하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보게 해, 청소년들 스스로 마음의 변화를 일으켜 건강한 불자로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고 있다. (02)733-6390 **남동우 기자**

청소년 심성프로그램 ‘우리도 부처님처럼’ 나와

조계종 포교원이 청소년들이 겪고 있는 어려운 상황을 부처님의 삶과 가르침을 통해 극복할 수 있게 <청소년 불교 심성 프로그램-우리도 부처님처럼>을 발간했다. 김남선 구암중학교 역사 교사가 현장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한 결과를 바탕으로 개발한 이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꺼려하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보게 해, 청소년들 스스로 마음의 변화를 일으켜 건강한 불자로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고 있다. (02)733-6390 **남동우 기자**

청소년 심성프로그램 ‘우리도 부처님처럼’ 나와

조계종 포교원이 청소년들이 겪고 있는 어려운 상황을 부처님의 삶과 가르침을 통해 극복할 수 있게 <청소년 불교 심성 프로그램-우리도 부처님처럼>을 발간했다. 김남선 구암중학교 역사 교사가 현장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한 결과를 바탕으로 개발한 이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꺼려하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보게 해, 청소년들 스스로 마음의 변화를 일으켜 건강한 불자로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고 있다. (02)733-6390 **남동우 기자**

MBC 언론중재위에 제소

월정사, 문화재보수 지원비 보도 관련

평창 월정사(주지 정법)가 2월 28일 문화재보수지원비와 관련한 보도를 내보낸 MBC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했다.

월정사 박재현 총무실장은 이날 언론중재위원회를 방문 ▲정정보도 방송 ▲사과문 게재 ▲손해배상 청구 등의 내용이 담긴 언론조정신청서를 접수했다. 이에 앞서 월정사는 MBC에 정정보도와 사정자 사과를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MBC의 정정보도는 사과 내용이 빠졌고 오보에 대한 해명도 매우 미약했다”며 “국민들이 문화재보수지원비에 대해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MBC는 26일 ‘뉴스투데이’를 통해 “석탑보수용이 아니라 주변 경관 정비 예산이었기 때문에 문화재 예산을 전용한 것과는 차이가 있어 바로 잡는다”라고 정정을 밝혔다. **여수령 기자**

‘禪 중심 사찰’ 운영은 어떻게?

제주 원명선원 ‘참선포교지도자’ 연수

불공이나 기도 등 기복중심의 사찰 운영에서 벗어나 참선수행 중심의 사찰운영을 배워볼 자리가 마련된다. 제주 원명선원(선원장 대효)은 3월 14일부터 매주 수·목요일 오후 7시 서울 봉은사 시민선원에서 ‘참선포교 지도자 연수’를 실시한다.

간화선 중심의 사찰운영 방법을 공유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회비 20만원, 접수는 원명선원 홈페이지(www.wseon.com)에서. 016-707-7450 **남동우 기자**

사찰문화음식학과 개설

동산불교대 21일 개강

국내 불교대학교로는 최초로 동산불교대학(회장 김재일)이 ‘사찰문화음식학과’를 개설하고 3월 21일 개강한다. 사찰문화음식학과는 1년 과정으로, 이론 강의와 실기 수업으로 진행된다. 지도교수로는 정산 스님(사찰음식전문점 산촌 대표) 등 사찰음식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수업은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에 진행되며 수강료는 학기당 150만원.(02)732-1206 **여수령 기자**

원통불법연구회, 학술세미나

원통불법연구회(회장 도입)는 3월 10일 오후 2시 ‘원통불법의 재천명 2차 학술세미나’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한다. 무주당 청화 대종사의 열반 4주기를 맞이해 열리는 이번 세미나에는 조은수 교수(서울대 철학과)가 ‘청화선사 사상과 수행법에 대한 소고’를, 이종표 교수(전남대 철학과)가 ‘청화선사의 원통불법과 순선사상’을, 송병욱 교수(경상대 윤리교육과)가 ‘육조해능을 중심으로, 순선시대의 수행론’을 각각 발표한다. (02)356-2001 **여수령 기자**

원통불법연구회, 학술세미나

원통불법연구회(회장 도입)는 3월 10일 오후 2시 ‘원통불법의 재천명 2차 학술세미나’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한다. 무주당 청화 대종사의 열반 4주기를 맞이해 열리는 이번 세미나에는 조은수 교수(서울대 철학과)가 ‘청화선사 사상과 수행법에 대한 소고’를, 이종표 교수(전남대 철학과)가 ‘청화선사의 원통불법과 순선사상’을, 송병욱 교수(경상대 윤리교육과)가 ‘육조해능을 중심으로, 순선시대의 수행론’을 각각 발표한다. (02)356-2001 **여수령 기자**

“아직 해방되지 않았다”

“우리에게는 아직 해방도 없고 전쟁도 끝나지 않았다.”

지난 2월 15일 미국 하원 외교위가 주최한 ‘일본군 위안부 청문회’에 참가해 위안부 관련 증언을 하고 돌아온 김군자(81) 할머니는 3월 1일 나눔의집(원장 원행)에서 열린 청문회 보고회에서 “일본은 하루 빨리 사과하고 배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왜 우리나라는 위안부 문제에 침묵으로 일관하느냐”며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그간 수십여 년을 외쳤지만 늘 대답 없는 메아리로 끝나는 얘기가

였다. 2월 15일 미 하원의회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2차 세계대전 종군위안부 청문회가 열렸다. 1월 31일 마이크 혼다 의원 등 하원의원 7명이 공동발의로 ‘일본군 위안부 결의안’을 미 하원에 제출했기 때문이다. 결의안에는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일본 정부의 공식 인정과 책임 등을 묻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청문회에 참석한 김 할머니는 “이제라도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제대로 밝혀져야 한다”고 증언했다. 결의안을 지지하는 목소리도 이

김군자 할머니 3·1절날 美 청문회 보고

‘민족정기...국회의원 모임’ 하원의장에 성명서

어졌다. 2월 28일 나눔의집을 찾은 민족정기를 세우는 국회의원모임(회장 김희선)은 할머니들과 간담회를 갖고, 펠로시 미 하원의장에게 보내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지난해 우수 국회의원 연구단체로 선정돼 받은 상금도 전문요양시설 건립기금으로 전달했다. 김희선 의원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한일 양국만의 문제가 아닌 세계 인류의 평화와 인권 문제”라며 “일본 정부가 진심어린 반성과 사죄를 통해 피해자들의 상처를 치

유해야 한다”고 말했다. 3·1절만 되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라는 목소리가 높아 지지만, 진전될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노무현 대통령은 3·1절 기념사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일본이 성의만 있다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지만, 일본의 아베 총리는 3월 2일 “일본군이나 정부가 위안부를 강제 동원했다는 증거는 없다”는 발언을 했다. 할머니들이 걸어가야 할 길이 지난 날 만큼이나 험난해 보인다.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MBC 불교문화재 주변정비사업 관련 월정사, 도피안사 오보에 대한 정정보도 및 대국민 사과요구

MBC는 지난 2월 20일(화), 21일(수) 양일간에 걸쳐 뉴스 프로그램들을 통해 본 중당 소속사찰(월정사, 도피안사)의 문화재 주변정비 사업에 대하여 예산을 불법 유용하였다는 내용의 보도를 전 국민에게 내보내바 있습니다. 그러나 보도내용은 명백한 오보이며, 잘못된 사실을 심각하게 왜곡하여 해당사찰 및 불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보도된 월정사, 도피안사의 문화재 주변정비 사업은 관련 법령에 근거, 문화재청의 적법한 심사와 절차를 거쳐 국회에서 편성된 예산이 올바르게 집행된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MBC는 ‘석탑을 고치려고 15억을 주었는데, 엉뚱하게도 석탑옆에 있는 절 건물을 고치는데 사용 했습니다’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월정사 석탑 보수비용 15억이 책정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주변정비 사업예산인 15억원은 2007년도 계획으로 집행

된 바도 없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보도이며, 의도적인 왜곡보도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언론기사이로서의 문제의식이 전혀 드러나지도 않으면서 잘못된 사실을 날조하여 적법하게 집행한 예산을 마치 불법 전용한 것처럼 보도한 것은 명백한 허위 기사입니다. 특히, 월정사의 공식 취재요청을 거부하고 비윤리적인 방식으로 취재하여 일방적으로 보도한 것은 민주사회 공영방송으로서의 신뢰를 저버린 일로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는 MBC의 책임있는 정정보도와 대국민 사과등의 책임있는 조치를 요청합니다. 또한, 우리는 이 기사가 잘못된 제보와 자료에 의해 일방적으로 취재된 내용이라 생각되며, 제보 및 취재과정등에 대한 자체 조사를 실시할 것과 그 결과와 관련 자료를 공개할 것을 요청합니다.

불기 2551(2007)년 2월 22일

대한불교조계종대변인, 총무원기획실장 승원 합장
강원불교연합회 고문 오현 합장 / 강원불교연합회 회장 정념 합장 / 강원불교신도연합회 회원 일동 / 강원문화재보호지킴연대 일동

연락처 - 구룡사(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학곡리 1029) ☎ 033)732-4800 / F 033)732-1211